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총력'

익산시, 이달부터 주민등록 사실·전수조사… 민·관 투트랙 지원

익산시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에 우선 집중하고, 지원·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사각지대 시스템 안전망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2만 2천여명의 대상자에 대해 유선 또는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관련 설문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통·리장의 기초 조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해,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 주거취약·고용 위기 및 건강위험·의료비 과다지출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익산시는 19일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패턴 감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경보알림 SMS를 송신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해 위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서비스다.

독거노인, 홀몸장애인, 중장년층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대상 500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 및 효과성 평가 후 정식서비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 자원까지 연계해 투트랙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형형색색 이벤트 '만발'

특별전시장 무료 관람·친환경 캠페인 동참·전래놀이 다문화 놀이 체험·닝생사진 무료인화

3년 만에 열리는 제19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형형색색 국화만큼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2 ~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타지역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국화축제 특별전시장 무료입장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특히 축제기간동안 지역 상권이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음식점(축제장 제외, 3만원 이상) 이용 SNS 인증 관람객에게 선착순 100명씩, 1,000명에게 국화꽃다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장 내에서는 다이로움카드 3만원 이상(합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이로움 1만 포인트 적립 자동참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화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꿀벌이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를 관람객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탄소중립 캠페인 동참 인증 이벤트도 준비했다.

또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등 가정에서 개인이 실천 가능한 수칙을 찾아 인증하면 친환경 대나무칫솔 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자녀와 함께 국화축제장을 찾은 가족들을 위한 천만송이 놀이마당이 새롭게 조성된다.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래놀이와 저이주엔, 틱택토, 드래곤볼 놀이 등 다문화놀이를 체험하면 국화꽃다발, 놀이도구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제기차기는 천만송이 놀이마당 기네스 종목으로 선정해 최종 우승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익산시 대표 농산물을 상품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홀로그램 및 VR·AR 체험과 인생사진 무료인화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축제장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체험을 찾는 재미가 예년보다 쏠쏠하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즐길거리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변화를 위해 나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의미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심골목 '중앙소풍 2022' 축제 성료

익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앙동 일대에서 열린 '중앙소풍 2022'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양성된 도시주민해설사들의 해설과 함께 걷는 '중앙동산책', 시장 통닭과 탄산음료(POP)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팝' 즐기기, 가족·친구·연인들과 추억을 떠올리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또 영정통 패션쇼, 시민노래자랑, MC와 함께하는 추억놀이, 찾아라 중앙동 요리왕! 등 관광객 참여 행사와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찼다는 평이다.

특히 시장통닭과 탄산음료를 오천원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높은 먹거리가 인기를 끌고 '시민노래자랑' 및 '영정통패션쇼'에서는 재능과 끼를 맘껏 발산하는 등 중앙동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

'중앙동 산책'에 참여한 한 가족팀은 "가족과 함께 해설을 들으며 산책하니 중앙동에 대해 몰랐던 역사와 이야기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중앙동에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창시절 자주 놀던 이곳이 침체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오랜만에 북적이는 중앙동을 보게 돼 기쁘고 옛 명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맘껏 놀이 한마당'이 지난 15일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관내 아동 및 부모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미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군산시, 아동 대상 '맘껏 놀이 한마당' 성료

군산시는 '맘껏 놀이 한마당'이 지난 15일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관내 아동 및 부모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맘껏광장 놀이 한마당은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등 활용한 새활용놀이, △윷놀이, 딱지놀이 등 전통놀이, △티니클링, 콩주 등 세계놀이, △한궁, 플라잉디스크 등 스포츠놀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담은 탄소중립놀이 등의 놀이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놀이활동과 더불어 아동들이 직접 만든 새활용놀이감 전시행사가 개최돼 놀이마당을 찾은 아동 및 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는 맘껏 놀이 한마당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 행사를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업에 짓눌렸던 아이들이 맘껏광장 놀이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뛰어놀며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중에 시행할 놀이활동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공식 SNS 마룡 굿즈 게릴라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해 문화 관광캐릭터 '마룡'을 활용,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20일 SNS 쿡페스트를 시작으로 천만송이국화축제, 호러 페스티벌, 보물찾기축제 등 28일까지 '마룡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동안 재미와 시정 홍보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익산시 공식 SNS 및 오프라인 이벤트'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해 특별 제작한 마룡 쿠션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SNS를 활성화해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와 유익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정 홍보채널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시는 마룡캐릭터 굿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다양한 시 SNS 이벤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게릴라이벤트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12일 익산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고 마룡 이모티콘 받자' 이벤트는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이모티콘 5만건 배포가 조기 마감되며 마룡 캐릭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시는 공식 SNS 홍보를 위해 그동안 야행, 서동축제에서 마룡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 등에게 시 공식 SNS 홍보에 큰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아동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수조사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육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 초·중학교 20개소를 선정해 9,000여명(초등 4~6학년 2,800명/ 중학교 1~3학년 6,2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학교는 초등학교(경포, 구암, 문화, 미성, 미장, 산북, 서해, 소룡, 신풍, 용문) 10곳과 중학교(금강, 군산남, 동원, 군산, 서흥, 산북, 영광, 월명, 진포, 제일) 10곳이다.

보건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중독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22년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 추진

군산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2년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량 조사는 차량의 통과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및 방향별로 조사해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7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이며 17개노선 17개지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다.

관측지점은 옥구읍 1곳, 옥산면 2곳, 회현면 2곳, 임피면, 2곳, 서수면 1곳, 대야면 2곳, 개정면 1곳, 성산면 3곳, 나포면 2곳, 옥서면 1곳이다.

시는 관측지점에 12종류의 분류로 8시간 3교대로 24시간을 시간대별, 차종별, 양방향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동시 추진되는 교통량 일제조사는 주요 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차종별, 시간대별 통과대수를 조사해 도로의 혼잡상태를 평가하고 도로정비계획 수립시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국가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